

회원들은 교역자가 설교할 때 빠르면 빠르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단상에 서면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를 빨리 했는지 느리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 단상에 있는 사람은 청중을 조금만 의식해도 말이 막 빨라지는데, 본인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설교 끝난 후에 ‘내가 말이 빨랐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단상에 서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설교하면서 빠르면 표시를 주는 사람을 세워서 꼭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십시오. 그 사람이 표시하면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를 주는 사람도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설교를 빨리 해서 못 알아들으면 전체에게 손해가 갑니다. 천천히 해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말이 빨랐습니다.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그러나 잘 몰라서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빨라서 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설교자들은 계속 고쳐나가야 합니다. 설교자들은 설교를 천천히 해야 됩니다. 사람이 열 받으면 말이 빨라집니다. 꺾어보면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싸우는 사람들 보십시오. 열 받으면 말을 빨리 합니다.

캠퍼스 지도자들은 자꾸 캠퍼스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자기 위치에 빠져 버립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산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자꾸 노래하고 찬송도하고 성경도 보고 해야 됩니다. 성경도 그냥 보지 말고 자꾸 크게 소리 내서 읽으면 설교 연습도 되는 것입니다. 산에 있을 때 내가 무슨 희망으로 설교연습을 했겠습니까? 신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나와서 아무것도 못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에게 계속 설교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연습을 하다보니까 내가 설교를 했는데도 내가 너무 잘해서 감격해서 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울릴 수 있어야 남도 울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노래 부를 때도 너무 잘 불러서 자기가 울면 청중 앞에 섰을 때 청중도 울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자기 칭찬하면 팬찮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내가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결국 다 써먹습니다. 내가 설교를 30년 동안 2만 번도 더 했습니다. 주일날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5-6번씩 사람들 만나는 대로 하니까 계속 설교한 것입니다. 우리 큰 형도 말을 잘 하고, 작은 형은 웅변대회에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설득력 있게 말을 잘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누가 설득력 있게 말을 제일 잘 하나?’고 물었더니 내가 제일 강하게 잘 한다고 했습니다. 형들은 말을 권위 있게 잘 하는데, 알아듣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이다.’하시며 ‘이와 같이 이르하다.’고 하

셨습니다.

설교는 항상 ‘이와 같이 이르하다.’ 식인데, 그것이 목서라는 것입니다. 옛날 시대에 지나간 것을 비유를 들면서 ‘이와 같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러하다는 것’은 아직 안 일어난 것인데 그 일어나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옛날 역사가 지나간 것을 보고 노아 때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 때를 잘 연구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와 똑같고, 앞으로도 그와 똑같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100%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100% 안다고 했습니다.

방에서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아버지가 87살에 돌아가셨는데도 충격을 받아서 한 열흘 동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월명동도 가서 애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것들이 빠지면 인생 허무한 것입니다. 루터가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아서 죽은 것을 보고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하고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깨닫고 루터가 그 엄청난 기독교의 큰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것을 늦게 깨달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은 힘든 애들 자꾸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해야 됩니다.

전도 부지런히 해서 배가운동 시켜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예정되어 있으니 고를 것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니까 그냥 갖다 놓고 무게를 달아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 들었는데 싫으면 나가고, 뜻이 있으면 남고 ...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하루에 한 명 전도하면 한 달에 30명인데 왜 못합니까? 나는 혼자서 하루에 800명까지 했습니다. 청중 모아놓고 밀어붙였습니다. 산에서 외친 게 그렇게 컸습니다. 산에서 외치듯 외치니까 잘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만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산에 있을 때부터 30년 동안 계속 외쳤습니다. 산에 있을 때 계속 기도하고 깨닫고 그 이튿날 전도하러 돌아다녔습니다. 실천 안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작곡을 할 때도 조금씩 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이거 안하면 죽는다.’ ‘내일 사형 당한다.’ 이런 각오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각오로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작곡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드린다고 피아노도 못 치는 사람이었는데 곡을 써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실천자가 필요합니다. 악기를 하는 사람은 곡을 쓰도록 하십시오. 나도 7-8곡을 써냈는데 받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딱 한마디 하면 알아듣고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에 어떤 사람은 3천곡을 썼는데 죽을 때 비법을 알려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악기 없이 허밍으로 곡을 썼다고 합니다.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곡을 쓰도록 하십시오. 찬송가를 자세히 보면 (작곡에 대한)영감이 옵니다. 찬송가에 있는 노래를 불러보면 얼마나 노래를 잘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3-4백 년 전의 사람들이 지었고, 흑인도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으니 곡을 쓴 것입니다. 나부터도 기도 생활하니까 바로 노래가 보였습니다. 창세기 태초에 대한 곡은 중국에 있을 때 지은 것입니다. 행진곡같이 지었습니다. 중국에서는 10개월 동안 볼펜도 종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있어도 주지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책 7권 분량을 외워가지고 왔습니다. 내 머릿속에 타자기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실제로도 타자기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얼마나 신기 합니까? 실제로 인쇄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타자기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책을 계속 사달라고 했더니 두세 달이 지난 후부터 책을 사줬습니다. 그 책속의 글을 하나씩 찢어서 전부 부쳐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는 진짜 머리가 비상하다고 하면서 없애 버렸습니다. 한국 같으면 종이로 만든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봐줬을 것입니다. 내가 원래 좀 극적이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서 총구 앞에서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질로 작곡도 해야 합니다.

월명동과 가까운 지역은 전도한 사람들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외 다니면서 좋은 곳 있으면 참고해서 월명동을 더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22개국 넘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막상 월명동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만리장성도 벽돌로 쌓은 것입니다. 높은 곳에 벽돌로 연결해서 길게 쌓아서 웅장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리장성을 보기 전에는 돌로 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벽돌로 쌓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리장성을 벽돌로 쌓았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월명동을 돌로 쌓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월명동을 만들 때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쌓아라.” 해서 쌓을 수 있었습니다.
월명동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돌아다녀봐야 압니다.

나는 마을에서부터 외치고 다녔습니다. 집도 몇 채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150명까지 주일학생 만들었습니다. 외부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다 이 동네 사람인줄 알고 ‘이 동네는 애를 많이 낳았네.’했는데 그 후에 파악해보니 6km, 12km 떨어진 곳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나도 모르

게 그렇게 빠져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전하고, 전하고 해서 그렇게 먼 곳에서까지 온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그런 기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교인하나 만든다. 못하면 죽는다.” 이런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150-200명 교회 만듭니다. 왜 못합니까? 나는 70일 굶으면서도 꽤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문화권이 뒤떨어졌는데도 작곡을 많이 했는데, 왜 이시대가 끌려갑니까? 내가 시 쓴 것도 1500편이 넘는데 거기서 좋은 것은 뽑아서 쓰던지 시대에 따라 맞게 가사를 쓰던지 하면서 곡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 사람들은 어떻게 곡을 쓰는지 물어보기도 하면서 작곡들 많이 하십시오. 지금 노래 부르는 곡 중에도 하나님이라 해야 맞는 것 있고, 예수님이라 해야 맞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구분해서 불러야 합니다.